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공간 사용 및 주생활을 통한 주거문화 비교에 관한 연구

- 멜버른(Melbourne)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Cultures between Korean-Immigrants and Australians in Melbourne, Australia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전공

강사 이영심*

Catholic University, School of Human Ecology, Consumer & Housing Studies

Lecturer : Lee, Young-Shim

<Abstract>

Each ethnic group has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nd each culture has developed with its own traditions. The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is getting more active through acculturation and cultural cont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omestic living of Korean immigrants with Australians in the form of a Cross-Cultural study. For this, usage of domestic space and seating style of 52 Korean households and 53 Australian households in Melbourne were analyzed. Ethnographic research with questionnaire was us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1. The most popular type of Living-Dining-Kitchen arrangement was L+ K·D for Koreans and L·D·K for Australians. 2. A laundry room was indispensable for both and they all wanted to do ironing in there as well as dry. Both were satisfied with the type which toilet was separated from the bathroom. Drain hole on the floor of the bathroom was not indispensable for most Koreans and Australians. 3. Koreans and Australians were doing various activities in living area and both were getting together around kitchen(dining) area. The particular thing of Koreans was that they were using the main bedroom with multiple purpose. 4. The seating style of Koreans and Australians belong to chair-seating style generally. But Koreans were using floor seating style in making bed for the guest and making Kimchi. Koreans and Australians were using mixed style of floor seating and chair-seating in relaxing time with watching TV, treating guest or so. 5. Koreans were not satisfied with using carpet cause of dust but Australians were satisfied with the carpet cause of warmness. 6. Most Koreans and Australians were take off shoes inside of the house. Koreans were organize shoes around the front door of the house usually and Australians were organize shoes in bedroom usually. 7. The most popular heating system was ducted heating for both. The level of satisfaction about ducted heating was low for Koreans because they thought that it could contaminate air. Australians were satisfied with ducted heating because they thought that this one was fit on the weather of this area. 8. Living room was the most important one for Koreans and Australians and they also thought it should be decorated well for entertaining guests. Most Koreans were estimate that the brightness of the light of the house was not enough but it was estimated to moderate for Australians on the contrary.

▲주요어(Key Words) : 비교문화연구(cross-cultural study), 한국 교민(korean immigrants), 호주인(australians), 주거 공간(domestic space), 기거 양식(seating style)

* 주 저 자 : 이영심 (E-mail : yslee99@hanafos.com)

I. 서 론

각 민족 집단은 타 집단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각 민족 집단의 전통으로 자리하게 된다. 주거는 특정 집단의 자연환경, 사회경제적인 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과 생활양식, 관습 등의 내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만든 복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정 집단의 주거생활의 산물로서 형성된 주거문화는 해당 집단의 사회적, 문화적인 가치와 욕구를 표현하며 그 집단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 발전하는 한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도 그 중심 요소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발전과 함께 각 민족 집단의 생활영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집단 간의 접촉이 점차 빈번해지며 이에 따른 문화 교류 또한 활발하게 일어남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변용(acculturation) 혹은 문화접촉(culture contact)등이 발생하는데 주거는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 간의 문화 교류에서 주거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할 수 있다.

Rapport(1960)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택 형태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관련시켜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주생활 형태 및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함을 보고하였다. 이는 주거의 형태와 구성은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또한 문화와 환경 사이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Aragonés et al, 2002).

주거 분야에서 자신의 주거문화를 타(他) 주거문화와 비교함으로써 주거 계획 면에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여러 주제를 가지고 시도되어 왔다. 로런스(Lawrence, 1982)는 영국과 호주의 주택을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거 공간의 계획과 사용상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벡텔(Bechtel, 1989)은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 공간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거주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가 있다(Hyung-Jeong Lee & Kathleen, 2004). 또한 리슈코 오자키(Ozaki, 2002)는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영국과 일본 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을 분석하여 문화가 주택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한 연구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생활 분석을 통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 문화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 전통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정무웅, 1988;

이희봉, 1988; 조성희, 1996). 이현정(1992), 박선희(2003) 등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의 생활양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주거 아이덴티티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도영(1998)은 한국교민의 주거 조절을 분석하여 전통 문화적인 주거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우리나라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동기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정서적인 경험이 현재 거주 공간에서의 개인 영역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 등이 있다(김원필, 이기현, 2003).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는 이 때에 주거 문화의 교류가 각 집단의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각 집단의 주거문화에서 전통으로서의 지속성을 가지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상호 접촉 및 교류를 통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주거문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다양한 주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과 호주인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의 주거 문화를 비교문화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교민의 주생활을 분석하였고 이어서 호주인의 주생활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종합하여 비교하고자 한 것이다.¹⁾ 본 연구의 가치는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과 호주인의 양면에서 관습적인 문화와 이질적인 문화가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이들의 주거 문화에서 전통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요소와 앞으로 변화가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용적인 면에서, 점차 그 관심 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호주 지역의 주택 및 주거문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다(多)문화권 사회인 호주에서 다양한 주거 문화를 고려한 주택을 계획할 때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문적으로 본 연구는 앞으로 점차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거면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시 토대가 되는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호주의 중심 도시인 멜버른(Melbourne)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2004년 7월 19일-9월 24일 사이에 행하였으며 연구 방법은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다(多)민

1) 본 연구의 결과는,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I)'(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2호, 2005)와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II)'(대한가정학회지 제 43권 제9호, 2005)로 보고하였다.

족 국가인 호주에서 빅토리아(Victoria)주의 중심 도시인 멜버른은 호주 내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멜버른이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주거 문화면에서도 다양한 민족 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하여 본 지역을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현장 연구는 문화인류학에 근원을 둔 문화기술학(Ethnography)의 방법과 질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과 면담을 행하였으며 각각의 주택에 대한 사진 촬영과 실측을 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교민 가정 52가정, 호주인 가정 53가정으로서 모두 105가정이었으며 각 가정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하였다. 각 가정에서의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질문지에 있는 문항을 기본으로 하여 면담자에게 질문하고 이에 따르는 부연 설명 혹은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녹음, 기입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호주인과 교민의 주거 문화를 비교하는 항목은 크게 주거공간의 사용 면과 주생활 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질문지는 주거공간 사용의 경우 각 주택의 LDK유형과 만족 정도²⁾, 개조 여부와 그 내용 및 기타의 공간 계획 등에 관하여 그리고 주생활의 경우는 각 실별 활동 내용,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그리고 각 실별 바닥재 및 난방 방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의 특정 지역에서 교민과 호주인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이를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로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밝힌다.

III. 문헌 고찰

1. 조사대상 지역의 자연 기후적 배경과 특성

호주는 면적 770만 평방킬로미터의 대륙 섬으로 남반구에 위치해 있다. 북부지역의 80%와 서부지역의 40%가 열대 기후에 속해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온화한 온대기후이다. 호주대륙은 1770년 8월 영국의 선장 쿡(Cook)에 의해 발견된 이후 영국령이 되었다. 초기에는 영국의 죄수 유형지로서 사용되었으나 1793년에 자유 이민이 시작된 이후 인구와 경제력이 급속하게 성장되었고 1901년의 연방자치체를 거쳐 1926년에 완전하게 독립하였다.

현재 호주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로 구성된 연방 민주 국가이며 6개의 주(빅토리아 (Victoria), 뉴 사우스

2) 조사대상자의 만족 정도는 측정이 필요한 특정 문항에 대하여 5점 Likert 방식(매우 만족스럽다 5점-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1점)으로 답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평균점수를 환산하여 측정하였다.

웨일즈 (New South Wales), 퀸스랜드 (Queenslan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타즈마니아 (Tasmania) 등) 와 2개의 특별구(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캐피탈 테리토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등)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인구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인구의 대부분이 동부 및 동남부 해안 평원 지역을 따라 발달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총인구의 1/3정도가 뉴 사우스 웨일즈 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1/4정도가 빅토리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22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는 약 4백 6십만 명으로 호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 또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서 날씨의 변화가 심하고 시간별 기온의 차이가 매우 큰 특성이 있다.

멜버른 지역의 주택 유형은 81.4%가 단독주택이며 약 70%의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Melbourne in Fact, 2001). 멜버른 지역의 주택은 90% 이상이 브릭 베니어(Brick Veneer)형식인데 이는 건물의 뼈대를 나무(timber stud)로 세우고 외벽은 한 층의 벽돌로 내벽은 플라스틱(plaster)로 마감하는 형식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지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외의 주택은 벽돌(Solid Brick House) 혹은 나무(Weatherboard House)를 사용한 주택 등이다(Hogan, 2005)³⁾ 멜버른 지역의 한인 이민은 1970년대 초에 정부 장학생의 이주를 시작으로 1975년에 월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재일파견 기술자들이 이주하는 등의 정도로 그 수가 미미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인의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멜버른에 거주하는 한인은 약 1만 명 정도이며 교민들의 약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이광석, 2005)⁴⁾.

2.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과 주생활의 변화⁵⁾

1) 정착기 - 1900년 이전의 시기

초기의 호주 건축은 주로 영국에서 수입한 재료와 영국식 디자인을 사용하여 건축하였다. 그러나 호주는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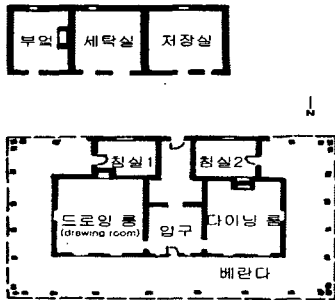
3) 본 내용은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소속 기술연구부(Technical & Research Services) 담당자(Manager)와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4) 멜버른에 이주한 지 17년째인 교민으로 현재 호주인 및 한인 주택의 증, 개축 및 각종 보수관련 작업을 하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5) 본 내용은 호주 주택에 관한 문헌과 주택, 건축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한 건축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였는데 시기에 따라 조지안 스타일(Georgian style; 1800년-1840년), 클래식(Classical; 1840-1890), 고딕(Gothic ; 1840-1880), 빅토리아 이탈리아네이트(Victorian Italianate; 1850-1880), 테라스(Terrace; 1840-1910), 빅토리아 붐(Victorian Boom; 1880-1900), 퀸즐랜드 스타일(Queenslanders; 1860년대) 등으로 분류된다. 1840년대에 목재관련 산업이 발달하면서 주택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1850년대 초기에는 영국에서 조립식 주택이 들어오기도 하였다(Anna, 1999).

19세기의 주택은 벽돌과 돌, 혹은 제재된 목재 등을 사용하였는데 19세기말에는 나무로 만든 웨더보드 커티지(weatherboard cottage)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 형태는 단순한 사각형으로 평면의 중심에 현관으로부터 이어지는 긴 복도가 있었고 복도를 중심으로 하여 드로잉룸(drawing room)이나 팔러(parlour)가 있었으며 다이닝룸과 부엌, 두개 이상의 침실과 욕실 등으로 구성되었다(Evans, 1983).<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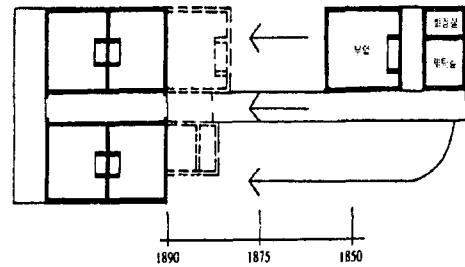


<그림 1> 초기 시기의 조지안 스타일 주택 평면, Anna C, 1999, p. 23)

드로잉 룸이나 팔러는 손님 접대용 방으로서 주택에서 가장 잘 꾸며놓은 방이었다. 드로잉 룸이 손님 접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팔러는 가족용 거실인 sitting room)이었는데 대부분 한 방에서 양 기능을 모두 행하였다. 평소에는 여자들이 드로잉 룸에서 바느질과 독서를 하였으며 때때로 가족모임을 하기도 하였다. 가족 식사는 다이닝 룸에서 했는데 때로는 다이닝 룸에 폴딩 도어(folding door)를 만들어 방과 통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식사 후 남자들은 다이닝 룸에서 여자들은 드로잉 룸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다. 1850년대 이전에는 주택 내부에 욕실을 두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대부분 아이들은 부엌에서 몸을 씻었고 어른들은 부엌에서 침실로 물을 가져와서 씻었다. 1860년대에 들어와서 주택 내부에 욕실을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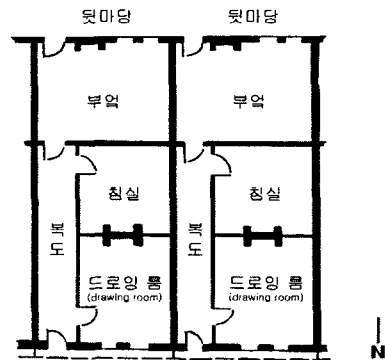
획하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1850년대까지 주택 본체에서 분리되어 있었다(Evans, 1983). 그러나 20세기 초가 되면서 점차 일반 가정에서 하인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지는 한편 경제적인 배관설비가 발달하고 가정 연료가 다양해졌으며 조리시설이 발전하는 등의 여러 요인에 힘입어 부엌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다.

Lawrence(1982)는 1850-1890년 사이에 부엌과 세탁공간이 주택 본체로 합해지는 모습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부엌은 여전히 기타의 주거 영역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림 2> 1850년-1890년에 부엌, 세탁공간, 화장실이 뒷 베란다는 통해 주택 본체로 통합되는 모습(Lawrence, 1982, p.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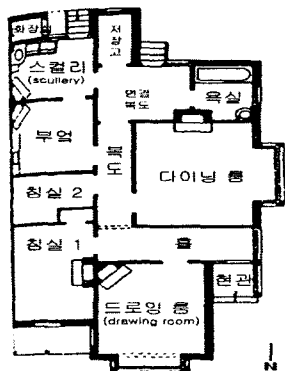
호주 주택의 특징적인 요소인 베란다는 1800년-1810년 사이에 처음으로 계획하였다. 베란다는 뜨거운 태양열이 외벽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주며 규모가 큰 주택에서는 각 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복도로 사용하는 등 기능 면에서 호주 주택에 부합되는 점이 많아 19세기와 20세기 초기에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발전하였다(Evans, 1983). 19세기 후반기에 나타난 특징적인 주택은 테라스 하우스였다. 이 시기의 테라스 하우스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계층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였는데 이는 소규모의 땅에 벽과 울타리, 배수관, 하수관 등을 공유하도록 한 경제적인 주택이었다(Anna, 1999).<그림 3>



<그림 3> 19세기 후반기의 테라스 하우스 주택 평면(Anna C, 1999, p. 26)

2) 1900년대 초기 -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

이 시기는 에드워드안(Edwardian; 1900-1920), 캘리포니아 방갈로(Californian Bungalow; 1915-1930), 스페니시 미션(Spanish Mission; 1920-1930), 워터폴 프론트(Waterfall front; 1930-1940)등의 건축 양식이 나타난 시기였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별도로 계획한 건물들이 없어지고 주택 본체에 욕실, 부엌, 세탁실, 화장실 등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대 초기부터 일반 가정에서 가정부를 고용하는 일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부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림 4>는 1900년대 초기의 주택 도면의 예이다. 현관 옆에 드로잉 룸이 자리 잡고 있으며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다이닝 룸이 위치하고 있다. 부엌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부엌 뒤에는 스킨리(scutlery)를 두었다(Archer, 1987). 스킨리는 부엌에서 조리하기 전에 씻기와 다듬기 등의 작업을 하는 곳으로 식사 후에 식기와 조리도구들을 씻었으며 빨래를 비벼 빨거나 삶는 작업도 하였다(Evans, 1983). 화장실은 욕실과 분리되어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였다. 거실과 침실 등의 주요 공간은 주택의 앞쪽에 부엌, 욕실, 화장실 등의 서비스 공간은 뒤쪽에 배치한 형태였다(Archer,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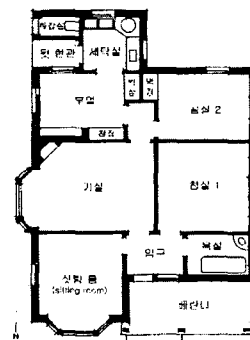


<그림 4> 1908년 교외의 작은 빌라(villa) 평면(Archer J, 1987, p. 152)

1920년대가 되면서 주택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주택 소유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 가족 당 평균 자녀수가 1920년대에는 4명, 1930년대에는 2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택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점차 규모가 작은 주택이 요구되었고 콤팩트(compact)한 주택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항목들이 개발되었다. 값싼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침실과 부엌에 불박이 옷장(built in wardrobe)과 수납장(custom-built cupboards)을 계획하였으며 침실과 베란다에 불박이식 침대(built in bed)를 설치하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전

형적인 주택의 특성은 초기에 있었던 긴 복도가 없어지고 벽난로의 수가 줄었으며 천장의 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또한 오래된 스타일의 다이닝룸이 없어지고 단순한 sitting room 혹은 리빙 룸을 계획하였는데 이는 건축비용과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림 5>는 1920년대 주택 평면의 한 예이다. 침실과 거실 등의 주요 공간이 이전 시기보다 좁아진 복도 쪽으로 열려 있다. 다이닝룸 대신 sitting room과 리빙 룸을 계획하였으며 화장실은 욕실에서 분리되어 주택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Cuffley, 1989). 1940년대까지 건축 재료가 부족하였고 주택 공급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과 건축 재료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주택 크기는 제한되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었던 시기였으며 단순한 기술과 보다 발전된 기술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시기이기도 했다. 1950년대에는 리빙 룸의 면적이 커지면서 다이닝 공간을 포함시키는 계획이 시도되기도 했다. 세탁실 및 다용도실은 주택 뒤편에 계획하였고 다용도실의 안쪽 혹은 그 옆에 화장실을 두었다. 1950년대에는 유럽에서 조립식 주택을 수입하기도 하였다(Cuffley, 1993).



<그림 5>1920년대의 주택 평면 (Peter Cuffley, 1989, p16.)

3) 1960년대 초기 - 1970년대 말까지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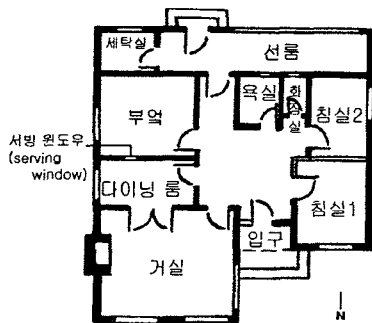
호주 인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다양한 주택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인 주택 이외에 플랫(flat)이 보편적인 주택 형태가 되었다.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형태였던 티피컬 인터네셔널(typical international) 스타일은 세 개의 침실과 한 개의 욕실 그리고 아직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오픈 플랜(open plan) 형식의 거실과

6) 호주에서 플랫(flat)은 2층 이상의 독립된 주택들이 한 부지에 대개 4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부엌으로 구성되었으며 간이차고(carport)나 차고(garage)가 포함되었다. 이전에 비해 벽난로가 줄었고 처음으로 주택 디자인에서 굴뚝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Anna, 1999). 철과 강화 콘크리트, 큰 판유리 등의 새로운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값싸고 실용적인 건축 기술을 적용하였다.

1960년대 초에 전형적인 현대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L자형 주택이 그 예로 차고가 부속되어 있고 평평한 지붕을 장식적인 기능이 지지하는 형태였다. 주택 내부에 덴(dens:응접 공간)과 럼퍼스(rumpus:자녀놀이 공간) 룸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부엌에는 해치 웨이(hatchway)를 두고 이를 통해 다이닝룸과 통하도록 하였다. 부엌은 점차 그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미국 잡지에서 본뜬 아일랜드형 식탁(island bench top)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주택에서 장식(decoration)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욕실에 화장실을 함께 계획하였고 욕실 크기가 커지면서 시설이 화려해지고 두 번째 욕실 혹은 침실에 속한 욕실을 계획하였다. 1960년대부터 '프로젝트 홈'(project home)이라는 샘플(sample) 집을 건설하였는데 이는 중간 혹은 중간 이하의 소득계층에게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Archer, 1987).



<그림 6> 1960년대의 주택 평면
(Anna C, 1999, p. 33)

<그림 6>은 1960년대 평면의 한 예이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복도를 거실과 침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다. 부엌과 다이닝룸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서빙 윈도우(serving window)를 통하여 이어져 있다. 주택의 뒤편에는 세탁실 그리고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룸을 두었으며 화장실은 여전히 욕실에서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1970년 후반이 되면서 생활에서 '환경'이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건축 또한 환경과 관계하여 계획되었다(Archer, 1987). 특히 1970년대에 일어난 유류 파동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편으

로는 오래된 주택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이 붐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에 일어나기 시작한 주택 투자와 함께 오래된 주택을 거주자의 기호에 맞게 개조하는 방식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4)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

이 시기는 주택 건설 및 계획에 있어 이전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때이다.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자 많은 인구를 일정한 범위 내에 거주시키기 위해 다층 주택의 건축이 권장되기 시작하였다. 단독 주택의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 부지에 유닛(unit)단지를 건설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아파트 또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서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특히 가족수가 적고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에게 선호되고 있다(Wight, 2004).⁸⁾ 주택의 리노베이션은 8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래된 주택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면에서 더욱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에너지 절약은 1980년대 이후 정책적인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 1991년부터 주택 건축 시 단열 등의 에너지관련 사항들의 의무화를 법제화하였다. 1991년에는 에너지 절약 사항을 준수한 주택에 '2 star home'을 부여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 7월 1일부터는 '5 star home'으로 그 기준을 높여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태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일반 주택에 태양열 난방시스템이나 오수 탱크 등을 만들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Nassau, 2004)⁹⁾

지난 20여 년간 주택 평면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비격식 가족단란 공간(informal living area)의 발전이다. 그 반면에 격식을 갖춘 식사실(dining room)과 거실(living area)은 사용 정도가 낮은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Dovey, 1992). 즉, 대부분의 주택에서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의 개념과 기능이 점차로 약해지고 있으며 대신 주택 뒤편에 있는 가족실(family room)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 가족실은 부엌, 다이닝 공간과 통합된 오픈

7) 호주에서 유닛(unit)은 단층으로 된 주택이 한 부지에 한 채 혹은 여러 채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단독주택의 뒷마당에 유닛을 지어 임대하거나 아예 단독주택을 헐고 3-4채로 구성된 유닛 단지를 만드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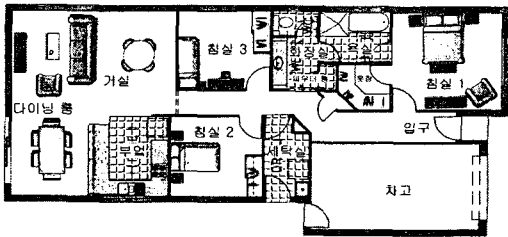
8) 본 내용은 빅토리아 주정부 관할 '지속가능성과 환경'(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부 소속 연구원(Senior Research Officer)과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9) 본 내용은 빅토리아주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ssion) 소속 건축설비(Building Quality) 부 담당자(Director)와의 면담을 통한 내용임.

플랜(open plan)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수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침실에 붙박이 벽장을 충분히 계획하며 부부 침실에는 워크인 클로젯(walk in closet)을 계획하기도 한다. 주택 면적이 여유 있는 경우에는 침실에 부속된 욕실을 계획하는 것도 점차 선호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호주 주택은 점차 가족 중심으로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공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Mellios, 2004; Archicentre, 2004).¹⁰⁾

<그림 7>은 최근에 건축한 주택의 예이다. 주택의 뒤편에 부엌과 다이닝룸, 리빙 공간이 오픈 플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앞쪽에 계획한 부부침실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부속되어 있는데 입구를 달리하여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호주 주택의 시대별 변천내용을 중심 공간별로 구분하여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림 7> 현대 주택의 평면 (Devine 건축회사 주택 평면집, 2004.)

<표 1> 호주주택 공간의 시대별 특성

| 주거공간 시기구분 | 가족단란 공간 | 부엌 | 세탁실 | 욕실 |
|-------------------|------------------|---------------------------|-------------------|--------------------------------------|
| 1900년 이전 | 드로잉룸/팔러 | 주택본체에서 분리. | 주택본체에서 분리. | 주택본체에서 분리. |
| 1900년대 초-1950대 말 | 싱팅룸/리빙룸 | 주택본체에 계획. | 주택본체에 계획. | 주택본체에 계획 / 화장실분리 |
| 1960년대 초-1970년대 말 | 텐스/러퍼스룸이 부가됨. | 부엌과 식사공간이 헤치(hatch)로 연결됨. | 면적확대/부엌과 연결하여 계획. | 면적확대/화장실통합형 나타남. 침실부속 욕실 생김. |
| 1980년대 초-현재 | 패밀리 룸(가족실)이 발달함. | 부엌, 식사공간이 거실과 통합됨. | 가사실로서 발전함. | 욕실, 화장실의 통합과 분리 병행. 침실부속 욕실이 기본 설비됨. |

10) 본 내용은 건축가인 Andrew Mellios와의 면담과 주택연구기관인 아키센터(Archicentre)가 제공한 자료에 의한 것이다.

IV. 결과해석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내용

조사대상자인 교민과 호주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주부의 연령 분포를 보면 교민의 경우 40세 미만이 55.8%, 40-49세가 36.5%로 30대와 40대가 대부분이었고 평균연령은 38.9세였다. 호주인의 경우 40-49세가 41.5%, 50세 이상이 37.7%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47.3세였다. 평균 가족 수는 교민의 경우 3.6명, 호주인의 경우 3.1명이었으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가 교민과 호주인 각각 63.5%, 79.2%로 핵가족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조사대상 교민의 67.3%가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이 주부였다. 조사대상 호주인은 72.7%가 대학을 졸업하였고 30.2%가 교사, 간호사 등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소득정도는 교민의 경우 연 3만불-5만불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연 5만불-7만불 미만이 29.8%였다. 호주인의 경우는 연 7만불-10만불 미만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10만 불 이상인 경우가 24.4%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변인 | 분류 | 교민 f(%) | 호주인 f(%) |
|------|------------------------|-------------------|----------|
| 주부연령 | 40세 미만 | 29(55.8) | 11(20.8) |
| | 40-49세 | 19(36.5) | 22(41.5) |
| | 50세 이상 | 4(7.7) | 20(37.7) |
| | 계 | 52(100) | 53(100) |
| 가족수 | 4명 미만 | 22(42.3) | 27(50.9) |
| | 4명 | 22(42.3) | 20(37.7) |
| | 5명 이상 | 8(15.4) | 6(11.3) |
| | 계 | 52(100) | 53(100) |
| 가족형태 | 부부 + 자녀 | 33(63.5) | 42(79.2) |
| | 부부 | 8(15.4) | 11(20.8) |
| | 부부+자녀+조부모 부부+자녀+기타인 | 4(7.7) 7(13.4) | |
| | 계 | 52(100) | 53(100) |
| 주부학력 | 대학졸업 이하 | 17(32.7) | 12(27.3) |
| | 대학졸업 이상 | 35(67.3) | 32(72.7) |
| | 계 | 52(100) | 44(100) |
| 남편직업 | 생산직 | 2(3.9) | 2(4.3) |
| | 판매·서비스직 | 18(35.3) | 8(17.4) |
| | 사무직 | 6(11.8) | 3(6.5) |
| | 행정·관리직 | 4(7.8) | 17(37.0) |
| | 전문직 | 14(27.5) | 11(23.9) |
| | 기타 | 7(13.7) | 5(10.9) |
| | 계 | 51(100) | 46(100) |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계속>

| | 변인 | 분류 | 교민 f(%) | 호주인 f(%) |
|----------|-------|-----------|----------|----------|
| 조사대상자 특성 | 소득 | 5만 불 미만 | 22(44.0) | 11(23.9) |
| | | 5-7만 불 미만 | 13(26.0) | 10(21.7) |
| | | 7만 불 이상 | 15(30.0) | 25(54.3) |
| | | 계 | 50(100) | 46(100) |
| | 이민 연수 | 5년 이하 | 26(50.0) | |
| | | 6-10년 | 12(23.1) | |
| | | 11년 이상 | 14(26.9) | |
| | | 계 | 52(100) | |
| | 부인직업 | 판매·서비스직 | 6(12) | 6(11.3) |
| | | 사무직 | 3(6) | 4(7.5) |
| 행정·관리직 | | | 3(5.7) | |
| 전문직 | | 5(10) | 16(30.2) | |
| 주부 | | 38(72) | 24(45.3) | |
| 계 | | 52(100) | 53(100) | |

조사대상 호주인이 조사대상 교민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양쪽 모두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 남편의 직업은 교민의 경우 판매·서비스직(35.3%)이 가장 많았으며 호주인의 경우는 행정관리직(37.0%)이 가장 많았다. 교민의 이민연수는 5년 이하(5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1년 이상(26.9%), 6년-10년(23.1%)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주택형태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단독주택이 각각 51.9%, 77.4%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침실 수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3개인 경우가 각각 50%, 50.9%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교민의 51.9%, 호주인의 96.2%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년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27.7년이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교민의 경우 평균 이민연수는 24년이었으며 주택형태는 두 사례 이외에는 모두 단독주택이었다. 조사대상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44.5년으로 대개 이민 연수가 긴 교민이 건축 경과연수가 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11) 빅토리아 주정부가 2001년 실시한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멜버른(Melbourne)의 가구당 연간 소득수준은 52,000불-77,948불이 17.2%, 36,400불-51,948불이 14.2%, 15,600불-25,948불이 13.9%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멜버른 한인회장과 면담에서 조사지역 중산층의 연간 평균소득이 보통 5만 불-8만 불 정도로 평가되며 최근에는 평균 10만 불-12만 불 정도를 중산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면담 결과와 유사함을 보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한인교민과 호주인 역시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들이 본 조사지역에서 중산층에 속한다고 파악하였다.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인 주택의 평균 건축경과 연수는 54.9년이었다.¹²⁾<표 3>

2. 조사대상자의 주 공간 사용에 대한 내용

1) 조사대상 주택의 평면 구성¹³⁾

(1) 거실·식사실·부엌의 연결 유형 및 만족 정도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주택의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 유형은 <표 4>와 같이 분류되었다. 교민 주택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실이 부엌과 식사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형(L+D·K;44.2%)이었으며 호주인 주택에서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L·D·K; 45.3%)였다.

<표 3> 조사대상 주택의 특성

| | 변인 | 분류 | 교민 f(%) | 호주인 f(%) |
|---------|----|--------------|----------|----------|
| 주택형태 | | 단독주택 | 27(51.9) | 41(77.4) |
| | | 유닛(Unit) | 17(32.7) | 4(7.5) |
| | | 타운하우스 | 4(7.7) | 2(3.8) |
| | | 아파트 | 3(5.8) | 6(11.3) |
| | | 테라스하우스 | 1(1.9) | |
| | 계 | 52(100) | 53(100) | |
| 주택 침실수 | | 2개 이하 | 14(26.9) | 10(18.9) |
| | | 3개 | 26(50.0) | 27(50.9) |
| | | 4개 이상 | 12(23.1) | 16(30.2) |
| | | 계 | 52(100) | 53(100) |
| 주택 소유형태 | | 소유 | 27(51.9) | 51(96.2) |
| | | 임대 | 25(48.1) | 2(3.8) |
| | | 계 | 52(100) | 53(100) |
| 건축연수 | | 1년-10년 이하 | 19(40.4) | 8(15.4) |
| | | 11년-30년 이하 | 10(21.3) | 8(15.4) |
| | | 31년-50년 이하 | 11(23.4) | 9(17.3) |
| | | 51년-100년 이하 | 7(14.9) | 19(36.5) |
| | | 101년-150년 이하 | | 8(15.4) |
| | | 계 | 47(100) | 52(100) |

현재의 연결 유형에 대한 만족정도를 평가한 결과, 교민의 경우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유형

12) 본 연구의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건축 경과연수는 조사대상 교민주택의 경우 30여년, 조사대상 호주주택의 경우 55년에 이르며 다수의 거주자들에 의한 주택개조 및 변형이 이루어진 이유로 조사대상 주택평면 각각의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힌다.

13) 본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 침실 수는 교민주택의 경우 2개 이하(26.9%), 3개(50%), 4개 이상(23.1%) 그리고 호주인 주택의 경우 2개 이하(18.9%), 3개(50.9%), 4개 이상(30.2%)의 분포로서 조사대상 주택들의 규모가 동일하지 않아 해석상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L+D+K)의 만족 정도가 평균 4.0점으로 가장 높았고 호주인의 경우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유형에 대한 만족정도가 평균 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교민주택의 일반적인 연결 유형으로 파악된 L+D·K형은 시대에 관계없이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평면구성 방식으로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들의 생활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로 보고한 바 있으며(김수현, 1999; 배정민 외, 2001) 해외거주 한인주택의 가장 보편적인 공간 사용 방식으로서 파악된 바 있다(조성희, 1996). 이는 L+D·K형이 조리 및 식사를 위한 공간과 단란 및 손님 접대의 공간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를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호주인 주택의 일반적인 연결 유형으로 조사된 L·D·K형(오픈 플랜)은 거실, 식사실, 부엌을 한 공간에 통합한 유형으로 한 곳에서 가족의 생활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점차 그 선호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호주인의 만족 정도 역시 평균 4.7점으로 높았다. 조사대상 교민 중 현재 오픈 플랜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만족정도(평균 3.9점)가 높게 나타나 오픈 플랜 유형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거실, 식사실, 부엌의 연결유형 비율과 만족 정도

| 유형 | 교민 | | 호주인 | |
|-----------|----------|----------------------|----------|----------------------|
| | f(%) | 만족 점수 (5점 Likert) | f(%) | 만족 점수 (5점 Likert) |
| L·D·K | 17(32.7) | 3.9 | 24(45.3) | 4.7 |
| K + L·D | 5(9.6) | 3.4 | 9(17.0) | 4.1 |
| L + K·D | 23(44.2) | 3.6 | 15(28.3) | 4.3 |
| L + D + K | 7(13.5) | 4.0 | 3(5.6) | 3.3 |
| D + K·L | | | 2(3.8) | 4.5 |
| 계 | 52(100) | | 53(100) | |

- L·D·K; 거실, 식사실, 부엌이 한 공간에 통합된 형태
- K + L·D; 거실, 식사실이 함께 있고 부엌이 독립된 형태
- L + K·D; 부엌, 식사실이 함께 있고 거실이 독립된 형태
- L + D + K; 거실, 식사실, 부엌이 각각 독립된 형태
- D + K·L; 거실, 부엌이 함께 있고 식사실이 독립된 형태

(2) 희망하는 부엌의 위치 및 거실과의 통합

조사대상 교민의 80.8% 그리고 호주인의 73.5%가 부엌이 주택의 뒤편에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교민의 경우 들어서서 바로 부엌이 보이면 미관상 좋지 않아서, 손님 접대 시에 불편하므로 그리고 한국 음식의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등이었다. 그 반면에 호주인은 뒷마당을 보면서 부엌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거실과 부엌의 통합에 대해서는 교민의 59.6%가 분리를 선호하였는데 이유는 조리 시의 음식 냄새로 아늑한 거실을 만들기 힘들고 손님 접대 시에도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문화가 식당공간의 개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서구와 차별화되는 주거 형태를 만든다는 연구 결과와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김수진, 1999). 미국 교민들 역시 부엌과 거실이 통합된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이희봉, 1998).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음식문화가 주거 공간·복식, 계반 사회경제 뿐 아니라 종교·신화와도 긴밀한 그물망을 이루는 가운데 존속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조홍윤, 2003).

조사대상 호주인의 경우는 54.7%가 부엌과 거실의 통합을 선호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업공간과 단란공간이 함께 있으면 가족 단란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한편으로 통합을 원하는 교민들(40.1%)은 작업 동선의 절약과 가족의 가사 참여가 수월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어 오픈 플랜의 다양한 기능을 짐작할 수 있었다. 분리를 원하는 호주인들(45.3%)은 조리작업 과정과 냄새 등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등의 교민과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부엌과 거실의 통합에 대한 선호 정도는 조사대상 가족의 부엌일에 대한 참여정도 그리고 이것이 가족 단란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진 1> 오픈 플랜의 예 (Kamun 댁)



<사진 2> 찌개를 끓이기 위한 외부 부엌 (신영자댁)

(3) 세탁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호주 주택에서 세탁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계획하여 왔으며 이는 근래에도 같은 경향이였다(Lawrence, 1982). 본 조사에서 교민주택의 90.4% 그리고 호주인 주택의 68%가 독립된 세탁실을 갖추고 있었다. 호주인 주택의 경우 구석 공간에 접이문을 달거나(18.8%) 욕실에 겸용하는 경우(13.2%)등이 있었는데 이는 주택 개조를 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탁실의 위치는 대부분 부엌 가까이에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기 편한 곳에 위치하였다. 5점 Likert로 측정된 세탁실에 대한 만족정도는 교민의 경우 3.7점, 호주인의 경우 4.1점이었다. 조사 지역의 경우 세탁기용 배수

설비가 별도로 없으며 손세탁조의 배수설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탁기의 배수호스를 손세탁조에 걸쳐 배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민들은 이에 대하여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세탁실에 대한 요구 사항에서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세탁실의 면적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즉, 세탁실에 세탁물 건조대를 두거나 다림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것을 희망하였다. 이는 조사지역의 기후 특성 상 날씨 변화가 심하고 겨울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아 실내에서 세탁물을 건조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주거 공간이 혼잡해지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납공간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교민의 경우 집안일에 사용하는 도구 이외에 마른 식품에 대한 수납 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김치를 담그거나 빨래 삶기¹⁴⁾ 등의 작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의 대부분이 손세탁조에서 손빨래를 행하였고 손세탁조를 기본 설비로 생각하였으며 이 외에 충분한 조명과 방음, 환기시설 등을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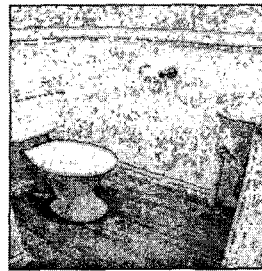
(4) 욕실 계획과 조사대상자들의 요구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의 욕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욕조, 세면대, 변기를 한 공간에 계획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욕실과 화장실을 분리한 형태가 일반적이다. 교민과 호주인의 대부분이 이 형태에 대하여 화장실과 욕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하였다. 다만 일부 교민이 화장실 청소 시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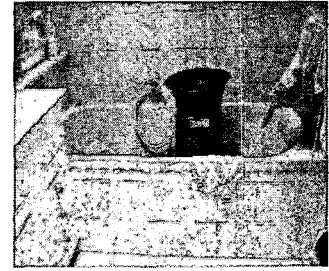
욕실의 수가 가족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으며 주택에 대한 만족정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Galster & Hesser, 198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모두 욕실의 수가 여유 있는 것을 희망하였다. 이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희망하는 주택 개조 사항에서 욕실이나 화장실 추가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도 관련한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욕실의 수는 주택 가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욕실관련 사항은 조사대상자들의 개조 희망 항목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 주택의 96.2%, 호주인 주택의 92.4%가 욕실 바닥에 배수구가 없었다. 배수구의 필요정도에 대하여 교민의 65.4%는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교민들은 배수구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으나 바닥이 습하지 않고 냄새가 올라오지 않아 더 위생적이며 욕실용 신발이 필요 없어 더 편하다고 하였다. 호주인의 경우는

66%가 배수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33.9%가 배수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결과에서 욕실 환경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인 가정 중 1사례는 욕실 바닥에 배수구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는 샤워 후에 흐르는 물의 처리를 위해서였다. 교민의 경우 목욕보다는 샤워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이는 목욕 시 바닥으로 물이 넘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호주인 역시 배수구가 필요한 주된 이유로서 욕조의 물이 흘러넘치는 것에 대비할 수 있고 욕실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들었다.



<사진 3> 바닥 재료로 나무를 사용한 화장실(Jade택)



<사진 4>욕실에서의 세숫대야 사용의 예(김윤희택)

(5) 실(室)사용의 변경 및 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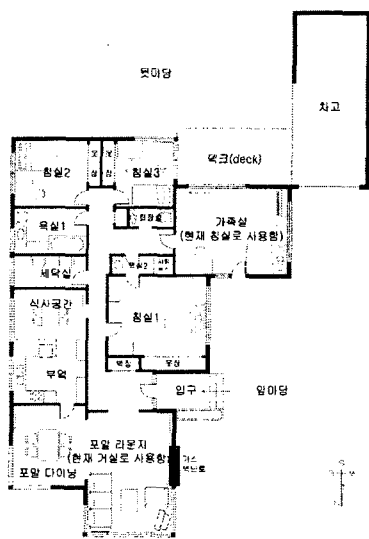
① 실(室) 사용의 변경

현재 사용하는 실(室)의 원래 목적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¹⁵⁾, 가족실(family room), 다이닝 룸(dining room) 등이었다. 먼저 포말 라운지의 경우 교민 주택은 6사례, 호주인 주택은 8사례가 포말라운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교민 주택의 2사례, 그리고 호주인 주택의 8사례가 포말 라운지를 가족의 모임 공간, 침실 혹은 아이들의 놀이 공간 등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주택 중 가족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2사례였는데 2사례 모두 이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이닝 룸의 경우 교민 주택의 2사례가 침실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거실에서 가족단위와 손님접대를 병행하고 있으며 식사 또한 다이닝 룸보다는 부엌 내의 식사공간에서 행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에서 다이닝 룸이 있는 경우는 10사례였는데 3사례 이외에는 이 공

15) 호주 주택은 전통적으로 주택 입구에 손님맞이를 위한 공간을 따로 계획하여 왔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실(living room) 혹은 가족실(family room)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최근에는 대개 규모가 큰 주택인 경우에만 계획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4) 교민들의 30.8%(16사례)가 빨래 삶기를 하고 있었는데 행주, 수건, 속옷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냄비나 큰 들통을 사용해서 삶고 있었다.

간을 침실, 스타디움, 가족실, 아이 놀이방 등으로 그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습적인 주거 문화에 근거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는 기타 해외지역의 교민들에게서도 관찰된 바 있다(이희봉, 1998; 조성희, 1996). 본 연구에서 주거공간의 본래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현상은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모두에게서 볼 수 있었던 현상이었다. 따라서 이는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공간 활용이라는 실용성이 기타의 주거 가치보다 우선하는 현대 주생활의 특징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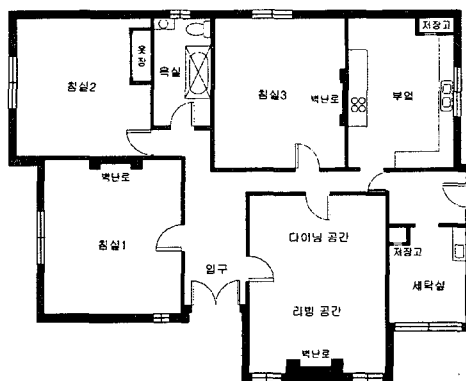
<그림 8> 주택 공간의 사용 변경의 예(안옥련댁)

② 개조 여부와 희망 개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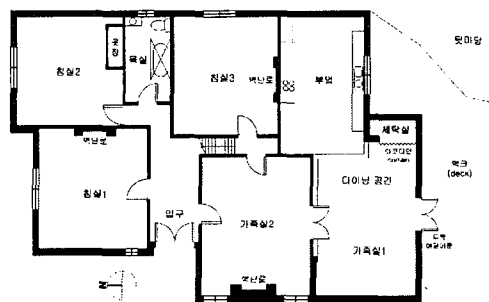
조사대상 교민 주택 중 10사례 그리고 조사대상 호주인 주택 중 29사례가 주택 개조를 하였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내용은 양쪽 모두 욕실을 하나 더 만드는 등 욕실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특히 화장실과 세탁실을 분리하기, 화장실에 세면대와 샤워기를 설치하는 등의 설비관련 사항이 많았다. 욕실 다음으로 개조를 많이 한 공간은 부엌이었는데 가장 빈도가 높았던 항목은 부엌을 거실과 통합하여 오픈 플랜(open plan)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호주의 주택연구기관인 아키센터가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빅토리아(Victoria)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조 항목이 부엌과 거실의 통합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Archicentre, 2002). 이 외의 개조 내용은 세탁실, 가족실 등의 개선 혹은 새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주택의 연장(extension) 혹은 2층으로의 증축 등이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희망하는 개조 사항에서는 교민과 호주인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교민은 주택을 연장(exten-

sion)하여 침실이나 선룸(sunroom)을 만들거나 가족실(거실), 침실, 부엌 등의 면적을 넓히는 등 주택 면적과 관련한 요구가 가장 많았던 반면 호주인은 침실부속 욕실(en suite)을 추가하거나 욕실 설비를 현대화하는 등 욕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그림 9> 개조 전 공간 사용(Brenda댁)



<그림 10> 개조 후 공간 사용(Brenda댁)

3. 조사대상자의 주생활에 대한 내용

1) 각실에서 행하는 활동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이 각실에서 행하는 주생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5>.

먼저 거실의 경우, 교민과 호주인 모두 거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가족단란이었으며 이 외에 주부의 독서행위와 아이 놀이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 등을 하고 있었다. 가사활동 관련 내용으로는 교민의 40.1%(21사례) 그리고 호주인의 50.9%(27사례)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주요 활동은 교민과 호주인 모두 식사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단란이었으며 양쪽 다 자녀공부와 주부의 독서행위 등은 식탁을 중심으로 하

여 행하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부엌의 식탁을 가족의 대화, 아이 공부, 손님접대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조사대상 교민의 40.4%(21사례)와 호주인의 18.9%(10사례)가 부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부부침실에서 행하는 주요 활동은 교민과 호주인 모두 부부취침과 독서였다. 교민의 경우 부부침실에서 가족 단란, 아이 놀이, 자녀공부 등을 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자녀가 아직 어려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교민의 경우 부부침실에서도 다림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부부침실을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방에서 다림질 및 빨래정돈 등을 행하는 것은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조성희, 1996).

자녀 침실에서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자녀취침 및 아이 놀이와 자녀공부, 독서, 취미 활동 등을 주로 하였고 양쪽 모두 자녀 방에서 손님 취침을 행하고 있었다.

<표 5> 각 공간별 주생활 내용

| 주생활 내용 | 거실(f) | | 부엌(f) (식사실) | | 부부 침실(f) | | 자녀 침실(f) | | 세탁실 (f) | |
|-----------|--------|-------------|----------------|-------------|-------------|-------------|-------------|-------------|---------|-------------|
| | | | | | | | | | | |
| | 교 민 | 호 주 인 | 교 민 | 호 주 인 | 교 민 | 호 주 인 | 교 민 | 호 주 인 | 교 민 | 호 주 인 |
| 취침 | 7 | 1 | | | 50 | 53 | 41 | 41 | | |
| 가족단란 | 45 | 50 | 34 | 26 | 10 | 8 | 3 | 9 | | |
| 아이 놀이 | 33 | 29 | 7 | 18 | 8 | 5 | 29 | 28 | | |
| 식사 | 17 | 18 | 52 | 41 | 2 | | 3 | 2 | | |
| 자녀공부 | 14 | 11 | 14 | 15 | 7 | 3 | 36 | 20 | | |
| 접대(친구) | 16 | 10 | 34 | 36 | | | | | | |
| 접대(공식) | 30 | 26 | 19 | 24 | | | | | | |
| 손님취침 | 4 | 10 | | | 2 | 3 | 22 | 23 | | |
| 다림질 | 21 | 15 | 10 | 9 | 6 | 3 | 2 | 3 | | 14 |
| 재봉 | 5 | 11 | 2 | 9 | 3 | | 1 | 4 | | |
| 취미 | 32 | 18 | 7 | 15 | 10 | 4 | 21 | 18 | | 2 |
| 독서 | 42 | 41 | 10 | 15 | 32 | 30 | 36 | 27 | | |
| 운동 | 15 | 5 | 1 | | 5 | | 2 | | | 4 |

조사대상 지역에서 마당에서의 활동은 가족 단란의 연장이며 데크(deck)는 바깥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은 모두 이 데크를 중심으로 가족 단란과 식사, 아이 놀이 등을 행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들은 뒷마당에 배추, 무, 고추, 파, 깻잎 등의 텃밭을 가꾸는 경우도 있었다.

주택의 면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교민들은 침실과 거실 그리고 부엌 등의 면적이 대체로 작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현재 각 실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특정 주거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는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보고한 바 있다(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그 반면에 조사대상 호주인들은 면적에 대한 특별한 요구는 없었으며 18.9%(10 사례)가 부엌 면적이 더 넓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조사대상 주택의 많은 경우가 오픈 플랜 형식으로 가족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 공간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2) 각 활동별 입식과 좌식의 정도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의 활동에 따른 입식과 좌식 정도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표 6>.

<표 6> 활동별 좌식과 입식 정도

| 주생활내용 | 기거양식 | 교민 | | | 호주인 | | |
|-------------|------|--------|--------|--------|--------|--------|--------|
| | | 좌식 (f) | 입식 (f) | 겸용 (f) | 좌식 (f) | 입식 (f) | 겸용 (f) |
| 취침(가족) | | 1 | 50 | | | 53 | |
| 취침(손님) | | 35 | 15 | | 18 | 35 | |
| 화장 | | 4 | 47 | | | 50 | |
| 재봉 | | 8 | 37 | | 1 | 38 | |
| TV시청 | | 14 | 20 | 18 | 1 | 38 | 7 |
| 독서 | | 5 | 45 | | | 40 | 1 |
| 가계부정리 | | 3 | 43 | | | 46 | |
| 손님접대(친구) | | 7 | 45 | | | 53 | |
| 손님접대(공식) | | 4 | 46 | | | 53 | |
| 가족식사 | | 2 | 50 | | | 53 | |
| 손님과 식사 | | 17 | 35 | | | 40 | 13 |
| 다림질 | | 15 | 34 | 2 | | 50 | |
| 세탁물개기 | | 15 | 36 | | | 48 | 1 |
| 손빨래 | | 3 | 35 | | | 41 | |
| 김치담그기(배추씻기) | | 8 | 34 | | | | |
| 김치담그기(버무리기) | | 27 | 13 | | | | |
| 야채다듬기 | | 2 | 45 | | | | |



<사진 5> 좌식으로 꾸민 손님방의 예(배용찬댁)



<사진 6> 입식과 좌식의 병행(Li댁)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취침 양식이 입식 지향인 것은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다(조성희, 1996). 본 연구에서도 가족취침의 경우 교민과 호주인 모두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교민의 경우 손님취침은 바닥에 요나 매트리스를 까는 좌식을 행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호주인의 경우 손님취침은 침대나 소파를 사용하는 사례(70%)가 많았으나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거나(24%), 얇은 요와 이불을 사용(6%)하는 등의 좌식 형태도 일부 볼 수 있었다. 교민과 호주인 모두 손님을 위한 매트리스는 침대에서 꺼내거나 혹은 여분을 준비해 두고 있었다.

가사작업 중 다림질은 교민과 호주인 모두 입식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항목이었다. 호주인의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다림질을 하는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식의 형태였다. 교민의 경우는 66.7%가 입식 다림질대 혹은 식탁을 사용하였고 29.4%는 바닥에서 담요 등을 사용하여 좌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다림질 행위는 좌식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박선희, 2003). 세탁물을 개키는 작업은 교민의 경우 대부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행하는 반면 호주인은 세탁실, 거실, 침실 등으로 작업 장소가 다양하였다. 호주인은 대부분(70.6%) 서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25.4%는 거실 소파나 침대 등에 앉아서 그리고 3.9%(2사례)는 거실이나 가족실 바닥에 앉아 좌식으로 하고 있었다. 바느질, 옷 손질, 재봉 등의 작업은 교민의 경우 주로 소파, 식탁 혹은 침대 등에 앉아서 행하였고 호주인은 대부분 식탁에 앉아서 행하였다. 손빨래는 교민의 78.9% 그리고 호주인의 87.8%가 세탁실에서 손세탁조를 사용하는 등 입식으로 행하고 있었다. 교민과 호주인의 대부분이 야채 다듬기 등을 비롯한 식사준비는 서서 행하고 있었다. 교민들의 78.8%(41사례)가 김치를 담가먹고 있었는데 김치 담그는 행위는 좌식과 입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즉, 배추 씻기는 81%가 주로 싱크대, 손세탁조 혹은 욕조 등을 사용하여 서서 하였고 버무리기 작업은 67.5%가 부엌 바닥에 앉아서 행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가사 행위 중 특히 김치 담그기는 부엌 바닥에서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희봉, 1998).

화장은 교민과 호주인 모두 입식의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욕실에 서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족이 TV를 시청하는 장소는 양쪽 모두 거실 혹은 가족실이었는데 교민의 경우 TV 시청 시 좌식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소파를 이용하는 경우가 38.5%(20사례)였으나 소파와 바닥을 겸용하는 경우가 34.6%(18사례) 그리고 바닥에 앉는 경우가 26.9%(14사례)였다. 해외에 거주하

는 교민들이 휴식시간이나 가족모임을 좌식으로 행하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보고하였다(조성희, 1996; 이희봉, 1998; 박선희, 2003). 호주인의 경우는 대다수(82.6%)가 입식이었으나 15.2%가 소파와 바닥을 겸용하였고 바닥에 주로 앉는 경우가 1사례 있었다.

독서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주로 취침 전에 침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의 장소는 소파였다. 가계부 정리는 양쪽 모두 주로 식탁에 앉아서 하거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입식으로 행하였다. 손님 접대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입식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양쪽 모두 이웃이나 친구의 접대는 부엌(식탁)에서, 공식적인 손님 접대는 거실(소파)에서 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민과 호주인 모두 평소의 가족식사와 손님접대는 대부분 식탁에서 행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의 32.7%(17사례)가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손님접대는 좌식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좌식 상차림이 입식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기타의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교민의 대부분이 가족식사는 입식으로 손님접대는 좌식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박선희,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호주인의 경우 손님이 많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식탁을 사용하며 몇 개의 식탁을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호주인의 24.5%(13사례)는 자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바닥에 좌식으로 앉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3) 각 실별 바닥재 구성과 신발 착용

(1) 각 실별 바닥재 구성

조사대상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의 바닥재 구성은 <표 7>과 같았다. 거실의 경우 교민 주택은 카펫과 나무가 각각 48%(25사례), 46.1%(24사례)로 비슷하였으며 호주 주택의 경우 카펫과 나무가 각각 45.3%(24사례), 54.7%(29사례)로 나무 바닥재의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전통적으로 호주 주택의 거실에는 카펫을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심미적인 면에서 나무 바닥재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사대상 교민의 경우 카펫을 걷어내고 이를 나무 바닥재로 교체한 경우가 7사례 있었는데 애초에 집을 얻을 때 바닥재가 나무인 집을 선택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호주인의 경우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한 경우는 모두 9사례였는데 그 이유는 천식 등을 우려한 건강상의 이유였다.

침실은 교민 주택의 경우 63.5%(33사례)가 카펫이었고 28.8%(15사례)가 나무 바닥재였다. 호주 주택 역시 64.2%

<표 7> 조사대상 주택의 각 실별 바닥재의 구성

| 공간별 바닥재료 | 거실f(%) | | 침실f(%) | | 부엌f(%) | | 식사공간f(%) | | 욕실f(%) | |
|-------------|----------|----------|----------|----------|----------|----------|----------|----------|----------|----------|
| | 교민 | 호주인 | 교민 | 호주인 | 교민 | 호주인 | 교민 | 호주인 | 교민 | 호주인 |
| 전체 카펫 | 25(48.0) | 24(45.3) | 33(63.5) | 34(64.2) | | | 4(7.7) | 15(28.3) | | |
| 전체 나무 | 24(46.3) | 29(54.7) | 15(28.8) | 19(35.8) | 17(32.7) | 21(39.6) | 20(38.5) | 30(56.6) | | 3(5.7) |
| 타일 | 2(3.8) | | | | 23(44.3) | 17(32.1) | 19(36.5) | 8(15.1) | 47(90.5) | 45(84.9) |
| 리놀륨 | 1(1.9) | | | | 7(13.5) | 10(18.9) | 7(13.5) | | 2(3.8) | 5(9.4) |
| 돌(대리석) | | | | | 2(3.8) | | 1(1.9) | | 2(3.8) | |
| 비닐장판 | | | | | 1(1.9) | | 1(1.9) | | | |
| 콜크타일 | | | | | 2(3.8) | 5(9.4) | | | | |
| 카펫+나무 | | | 4(7.7) | | | | | | | |
| 비닐장판+ 타일 | | | | | | | | | 1(1.9) | |
| 계 | 52(100) | 53(100) | 52(100) | 53(100) | 52(100) | 53(100) | 52(100) | 53(100) | 52(100) | 53(100) |

(34사례)가 카펫이었고 35.8%(19사례)가 나무 바닥재로서 양쪽 모두 카펫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침실은 취침을 하는 곳이므로 따뜻하고 조용한 바닥 재료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카펫의 사용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교민들의 경우 34.1%는 보통 그리고 24.4%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하여 만족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카펫이 우리의 생활 관습상 익숙하지 않으며 좌식 생활을 병행하는 경우 먼지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신발을 벗는 생활습관을 고려할 때 자연 소재가 바람직하며 카펫은 먼지가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소음발생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수진, 1999). 또한 권오정과 전계원(199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하는 바닥재는 목재였으며 이는 건강에 좋고 질감이 좋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미국 등지의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카펫보다 목재 바닥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정무웅, 1988).

조사대상 호주인의 경우는 카펫에 대하여 아주 만족과 만족이 각각 37.5%로서 만족정도가 높았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카펫에 대한 선호정도가 예전에 비하여 달라지고 있기는 하나 카펫이 보온성과 흡음성이 뛰어나고 아늑하고 고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호주인의 카펫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호주인이 거실과 가족실의 이상적인 바닥재로서 나무 바닥재를 선호한 반면 침실의 경우는 카펫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았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엌은 교민 주택의 경우 청소하기 쉬운 재료인 타일이 44.2%(23사례)로 가장 많았다. 호주 주택의 경우는 전체가

나무인 경우가 39.6%(21사례), 타일이 32.1%(17사례), 리놀륨이 18.9%(10사례)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호주 주택의 부엌 바닥재가 나무가 많은 이유는 조사대상 주택의 부엌 유형이 거실과 부엌, 식사실이 함께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식사 공간의 경우 교민 주택은 38.5%(20사례)가 나무, 36.5%(19사례)가 타일이었고 호주 주택은 56.6%(30사례)가 나무, 28.3%(15사례)가 카펫으로 조사되었다. 식사공간이 나무 바닥재인 경우는 대부분 거실과 통합되어 있는 오픈 플랜인 경우이며 타일인 경우는 대개 부엌에 식탁을 둔 경우 그리고 카펫인 경우는 다이닝 룸이 따로 있는 경우로 분석되었다. 욕실의 바닥재는 교민주택과 호주인 주택의 대부분이 타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

조사대상 교민의 96.2%(50사례)가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을 지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조성희, 1996). 호주인의 경우 41.5%(22명)가 실내에서 주로 신발을 벗고 있었고 37.7%(20명)가 주로 신발을 신고 생활하였으며 20.8%(11명)는 양쪽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이유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실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호주인의 경우 신발을 벗으면 신체적으로 더 편안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호주인의 경우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이유는 관습적으로 행하여왔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들 대부분이 신발을 벗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고 있어 관념과 습관사이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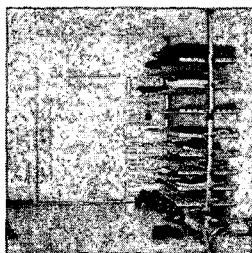
신발의 수납방법에서는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이 차이를 보였다. 교민의 경우 대부분 현관 밖에 신발을 벗어둔 채로 생활하였는데 32.7%(17사례)가 현관 안쪽에 신발장을 두었으며 25%(13사례)가 실내의 붙박이장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 현관 밖에 신발장을 둔 경우가 9.6%(5사례) 그리고 복도에 신발장을 둔 경우가 5.8%(3사례)로 많은 경우가 신발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반면에 호주인은 대부분 침실 내에 있는 옷장 아래에 신발을 수납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장 전통적인 수납방법이기도 하다. 이 외에는 현관 옆에 박스형의 신발장을 마련한 경우가 2사례였으며 이 외에는 세탁실이나 지하실에 수납하거나 혹은 박스 안에 한꺼번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교민의 대부분(86.5%)이 실내에 슬리퍼를 두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겨울에 사용하며 호주인의 방문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호주인 역시 반 정도가 실내에서 슬리퍼를 사용하였는데 주로 겨울에 보온을 위해서였다.

각기 다른 문화에서 비롯되는 실내에서의 신발 착용을 수용하는 정도에 있어 교민과 호주인은 차이를 보였다. 교민들의 경우 호주인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61.5%가 호주인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호주인이 이에 응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으로 조사대상 교민들은 호주인의 주택을 방문할 때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보다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호주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발 착용 여부에 관계없이 손님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1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조사대상 호주인들이 동양인의 주택을 방문할 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많은 호주인들이 동양 문화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로 많은 호주인이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사료된다. 조사대상 호주 주택 중 4사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현관 바닥재를 카펫에서 타일로 교체하였는데 이도 역시 그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7> 현관입구에 신발장을 만든 예 (Caula 닻)



<사진 8> 현관에 신발장을 설치한 예(전정자댁)

4)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조사대상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의 난방방식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교민 주택의 경우 67.3%가 덕티드 히팅(ducted heating)¹⁶⁾이었고 이 외에 가스히터 혹은 냉·난방겸용 에어컨디셔너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호주 주택 역시 대부분(58.2%)이 덕티드 히팅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에서 가장 보편적인 난방방식인 덕티드 히팅에 대한 만족정도는 교민과 호주인이 각기 달랐다. 즉, 교민의 경우 평균 3.27점으로 만족 정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호주인은 평균 4.4점으로 만족정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은 날씨의 변화가 매우 심하고 시간별 기온 차이가 큰 특성이 있다. 덕티드 히팅은 이러한 온도 차이에 대응하여 추운 날씨에 실내 온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으며 기온이 올라간 후에는 스위치를 내리면 빠르게 식는 특성이 있다. 호주인의 만족정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호주인이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서 덕티드 히팅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교민들의 대부분은 덕티드 히팅으로 만드는 뜨거운 공기가 집안을 건조하게 하며 순환되는 공기에 섞여있는 먼지 입자가 건강에 좋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조사대상 교민들이 희망하는 난방 방식은 75%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의 온돌이었다. 그러나 교민들은 온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조주택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별도로 해야 하며 또한 주택 매매(賣買)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통 요소의 도입이 주택 가치를 절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실제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현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정무웅, 1988). 조사대상 교민들의 75%(39사례)가 전기장판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59점이었다. 온돌의 대체용품으로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현상은 기타 해외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도 마찬가지였다(박선희, 1998; 이현정, 1992). 조사대상 호주인 중 바닥(온돌)난방을 경험한 경우는 8사례였는데 모두 그 느낌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바닥을 데우고 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점으로 평가하였고 따라서 주택 전체보다는 욕실 등의 필요한 일부만을 바닥 난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하였다.

16) 덕티드 히팅은 주택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 보일러를 이용하여 공기를 가열한 후 이를 각 실의 바닥 혹은 천장에 있는 공급구를 통하여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개 가스를 사용한다.

<표 8> 조사대상 주택의 난방방식

| 난방유형 | 교민 f(%) | 호주인f(%) |
|--------------------|----------|----------|
| 덕트드 히팅 | 35(67.3) | 31(58.4) |
| 가스 벽난로 | 8(15.4) | 9(17.0) |
| 전기 냉·난방 겸용 에어 컨디셔너 | 3(5.8) | 2(3.8) |
| 하이드로닉 히팅 * | 1(1.9) | 2(3.8) |
| 전기히터 | | 1(1.9) |
| log 난로 | | 2(3.8) |
| 중앙난방 | | 4(7.5) |
| 벽난로 | | 2(3.8) |
| 온돌 | 2(3.8) | |
| 난방 없음 | 3(5.8) | |
| 계 | 52(100) | 53(100) |

* 하이드로닉 히팅(hydrionic heating)은 각 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고 온수를 순환시켜 난방 하는 방식이다.

4. 조사대상자의 주택 관련사항에 대한 평가

(1) 주거공간의 중요도 정도에 대한 평가

전체 주거공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은 조사대상 교민(42.3%)과 호주인(42%) 모두 거실이었다고 그 이유는 거실이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로서 가족단위의 중심공간이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공간은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각각 21.2%, 38%로 부엌이었는데 그 이유 역시 가족단위를 통하여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 주택의 중심공간으로 잘 꾸며야 하는 공간은 조사대상 교민의 63.5%, 호주인의 76%가 거실이라고 답하였다. 이는 거실이 가족단위의 중심 공간인 동시에 손님접대의 기능 또한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2) 주택의 조명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들은 건축 경과 연수가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예전에 향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창문의 크기가 작아서 실내가 어두운 특징이 있다. 적정 조도수준은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언급한 라포포트(Rapport, 1985)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이 느끼는 적정 조도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은 부엌 외에는 대부분 백열등을 사용하며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의 사용이 일반적이다. 조사대상 교민의 대부분이 조명의 밝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교민들 중 조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명을 교체한 경우가 48%(25사례)이었으며 그 중 68%(17사례)가 백열등을 절전형 형광등으로 교체하였다. 조사대

상 교민들의 대부분은 부분조명보다는 전체조명을 선호하였다. 반면에 조사대상 호주인의 대부분은 현재의 밝기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디머(dimmer)로 조절이 충분하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호주인이 조명을 교체하거나 밝기를 조절한 경우는 전체의 32%(17사례)였다. 호주인의 경우 부엌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을 선호하였다.

(3) 주택 선택 시의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 교민의 경우 주택을 얻거나 구입할 때에 고려하는 사항들은 주택의 위치, 향, 주택의 상태(condition), 주택의 평면계획¹⁷⁾ 등이었으며 호주인의 경우는 주택의 위치, 향, 주택의 평면계획, 전망 등이었다. 따라서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 모두 주택의 위치 즉,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주변에 학교와 쇼핑센터, 공원 등이 가까우며 대중교통 수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교민의 경우 주택의 상태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주택의 노후정도와 전기, 난방시설을 비롯한 제반 시설은 곧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과 밀접하게 관련하기 때문이다. 주택의 향은 주택의 전체적인 밝기와 직접적으로 관련하는 것으로 교민과 호주인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주택의 향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정무웅, 1988). 주택의 향은 충분한 햇볕을 받기위한 조건으로서 조사대상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남향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앞쪽 정원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북향(North facing garden)주택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은 대부분 주택의 앞부분에 포말 라운지(formal lounge)와 포말 다이닝 룸(formal diningroom) 등 손님을 위한 공간이 있으며 주택의 뒤편에 가족실, 부엌, 침실 등이 위치한다. 따라서 가족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은 사실상 주택의 뒤편이며 앞마당보다는 뒷마당의 활용 정도가 더 높아서 주택의 앞쪽보다는 뒤편에 햇볕이 잘 드는 주택을 더 유용하게 평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호주인이 고려하는 향에 대한 개념은 주택 내부가 환하며 필요로 하는 곳에 햇볕이 충분히 잘 들어야 하는 기능으로서 해석할 수 있겠다.

V. 요약 및 결론

1. 거실과 식사실 그리고 부엌의 연결은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이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 유

17) 주택의 평면계획 요소는 침실의 수, 가족실 유무, 충분한 수납공간의 유무, 뒷마당과 테크의 유무 등이다.

형에 대한 만족정도 역시 다르게 파악되었다. 교민의 경우에 조리공간과 휴식공간의 분리를 선호한 반면 호주인의 경우는 통합을 선호하였다. 선호하는 부엌 위치는 양쪽 모두 주택의 뒷편이었으나 그 이유는 교민의 경우 조리과 식사 시에 발생하는 음식냄새 때문이었고 호주인은 부엌에서 뒷마당을 보며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뒷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였다. 부엌과 거실의 통합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와 기타의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에게서도 보고된 바 있다(이희봉, 1998; 김미희, 문희정, 2001).

특정 민족의 문화 속성 중 음식문화는 그 특성이 뚜렷하고 지속 정도가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결과 역시 오랜 기간동안 형성되어 온 문화 속성이 현재의 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민의 경우 조리 시 발생하는 음식냄새가 부엌을 다른 공간에서 분리시키고자 하는 주요 원인이었으며 이는 특히 손님 접대 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그 반면에 호주인의 음식문화는 부엌이 다른 공간과 통합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호주인 역시 부엌과 다른 공간과의 분리를 원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음식 문화와 공간 계획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음식 문화와 가족단란 그리고 손님 접대 등과 관련하여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심층연구가 요망되며 특히 다양한 타(他) 문화권에서의 비교연구가 함께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주생활의 비교문화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며 그 연구결과는 다양한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주택 계획 시 활용 가능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의 대부분이 손세탁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민들은 손세탁조를 세탁실의 기본설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욕실의 배수구에 대해서는 교민과 호주인 모두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로 인식하였다.

교민의 경우 세탁실을 필수 공간으로서 인식하고 손세탁조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이에 대한 요구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주생활 양식 또한 함께 변화한 예로 해석된다. 욕실 배수구의 필요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 역시 관습적인 주거 문화가 새로운 주거 환경에 도입된 후에 일정한 적응 과정을 거쳐서 현지의 주거문화에 적응한

예로서 사료되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조사대상 지역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배수구에 대해서 조사대상 호주인의 3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는 욕실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호주인의 관습에서의 변화로서 파악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이고 원활한 가사활동을 위하여 다용도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거 공간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면에서 욕조, 세면대, 변기의 통합에 대한 재고 역시 요망된다.

3. 조사대상 교민과 호주인이 각실에서 행하는 주생활 내용을 파악한 결과 거실과 식사실을 포함한 부엌에서의 활동은 교민과 호주인 모두 유사하였다. 차이를 보인 것은 부부침실이었는데 호주인의 경우 부부침실을 부부의 사적인 활동을 행하는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교민은 부부취침과 독서 이외에 가족단란과 아이 놀이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안방과 거실은 전통적으로 가족의 다양한 활동을 포괄하는 성향을 띄어왔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 역시 특정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김미희, 1991; 윤정숙, 1990; 윤재웅, 2000;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최목화, 1991).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교민들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조사대상 교민들이 거주공간의 면적이 작다고 평가하였고 희망 개조사항 역시 주택 면적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던 사실과 관계한다. 조사대상 호주인의 경우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가 일부 있었는데 이는 호주인 주택의 많은 경우가 오픈 플랜 유형이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조사대상 교민들은 특정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공간 본래의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관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조절과 변형이 일어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사용면에서 나타난 교민과 호주인의 차이는 이것이 서로 다른 주거 문화에 의거하고 있는 뚜렷한 현상인지 혹은 호주 주택의 주거 공간 계획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인의 주거 공간 사용방식이 관습에 의한 것인지 혹은 현재의 공간 계획에 의거하여 행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호주인들의 주생활 문화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타(他) 문화권 거주자들과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 또

한 필요하다.

4. 주생활 내용별 좌식과 입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교민과 호주인 모두 대부분의 생활은 입식이었으나 취침행위 그리고 TV를 시청하며 휴식을 취하는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좌식을 겸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민과 호주인 모두 손님 접대 시에 좌식을 병행하였는데 이는 많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나 좌식 자체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는 기타의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의 주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현상이었다(박선희, 1998; 이희봉, 1998; 정무웅, 1988).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관습 면에서의 편안함이라는 요소를 고려한다면 호주 교민의 주생활에서 일정 부분의 좌식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호주인의 경우 이들의 타(他)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가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호주인의 생활 속에서 일정 부분 좌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각기 다른 문화 간의 교류가 점차로 활발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주생활 면에서의 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본다.

5. 조사대상 주택의 바닥재는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이 각 공간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침실의 경우는 공통으로 카펫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지역의 전통적인 바닥재인 카펫에 대하여 교민들은 비위생적이라는 점에서 만족 정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현재 행하고 있는 좌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타 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박선희, 2003; 이도영, 1998; 정무웅, 1988). 호주인의 카펫에 대한 만족 정도는 높았으나 본 연구에서 거실과 부엌의 바닥재로 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나무 바닥재에 대한 선호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무 바닥재가 심미적인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조사대상 지역에서는 카펫을 나무 바닥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주인의 경우 바닥재를 나무로 한 경우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바닥재의 변화는 주생활 관습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 상 다(多)문화권에서 이루어지는 주거 문화의 교류가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

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망된다.

6. 실내에서의 신발 착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조사대상 교민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고 있었다. 호주인 역시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신체적으로 편안하며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호주인이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이유는 관습에 의거한 경우가 많았고 이들도 관념적으로는 신발을 벗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민들은 현관 주변에 신발을 벗는 공간 혹은 신발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관습을 지속하기 위하여 주거 환경을 변형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호주인 주택에서는 현관 바닥재를 카펫에서 타일로 바꾸는 등 신발 착탈을 위한 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호주인의 타(他)문화에 대한 존중 정도가 높게 파악된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앞으로 호주인의 신발 착탈 면에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대상 지역은 다양한 문화권이 혼합된 특징이 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상호 교류는 생활의 다방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타(他)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호주인의 주생활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다(多)문화권 안에서 일어나는 주생활 문화의 상호교류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조사대상 지역에서 타(他)문화를 고려한 주택의 계획요소로서 혹은 조사대상 지역의 주택 계획에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계획요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 교민 주택과 호주인 주택의 난방방식은 뜨겁게 만든 공기를 공급하는 형식의 덕티드 히팅이 일반적이었다. 호주인의 덕티드 히팅에 대한 만족 정도는 매우 높았던 반면 교민들은 비위생적이며 건조하다는 이유로 보통 정도로 평가하였다. 많은 조사대상 교민들은 온돌을 가장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주택 조건과 비용 그리고 주택 매매 시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설치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즉, 난방방식은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조건과 필요 정도가 관습에 앞서 우선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인 역시 덕티드 히팅을 대체할

수 있는 난방 방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난방 방식에 대한 평가 및 온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난방방식에 대한 심층 연구를 행할 경우 조사대상 지역의 주거 환경에 적합한 난방 방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8. 주택의 실내 조도에 대해서 조사대상 교민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한 경우가 많았다. 그 반면에 호주인은 현재의 조도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을 선호하였다. 이는 적정 조도수준이 문화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한 라포포트(Rapport, 1985)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교민과 호주인의 서로 다른 관습에서 비롯된 차이로 사료되었다. 대부분의 교민들이 주택 선택 시 향(向)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교민도 마찬가지여서 이 역시 관습의 영향으로 사료되었다(정무웅, 1988). 호주인 역시 주택의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이는 일정한 방향보다는 일출 및 일몰의 방향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 환경에 대한 인식 및 만족 정도는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 및 주거 경험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민과 호주인 뿐 아니라 타(他)문화권과의 비교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주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데서 오는 특징적인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9. 호주에 거주하는 교민과 호주인의 주생활을 분석한 결과 양쪽 모두 주생활 속에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주거 문화의 교류를 통하여 변화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먼저, 주생활 속에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를 보면 교민의 경우 주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관습적인 요소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을 하며 손님 접대와 가사 활동 등의 특정 부분에서 좌식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이었다. 교민들의 카펫 사용에 대한 만족정도가 높지 않았던 결과 역시 좌식 문화와 관계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교민들이 부엌이 거실에서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선호하는 현상은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정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상 역시

주 공간 사용에 대한 관습적인 요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외에 주택의 향을 중요시하고 부분조명보다 전체조명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 관습에 근거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한편으로 호주인의 주생활에서 관습적인 요소로서 파악된 항목은 거실을 가족단위의 중심공간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에는 호주인 주택의 전통 요소로서 계획해 왔던 포말라운지와 포말 다이닝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거실을 부엌이나 식사실과 통합하는 유형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거실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조사대상 호주인이 거실을 제일 중요한 공간으로 그리고 제일 잘 꾸며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부엌 면적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았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 침실을 부부를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만 사용한다거나 전체조명보다는 부분조명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 호주인의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되었다.

다음으로 타(他) 문화 속에서 조절과 변형을 통하여 관습적인 주거 문화의 지속을 시도한 예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교민의 경우 신발 착용을 위한 공간을 스스로 계획하는 예 그리고 특정 공간의 목적을 변경하여 실제의 생활에 맞추어 사용하는 예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관습이 변화한 경우로서 파악된 예는 조사대상 교민의 경우 세탁실을 필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손세탁조를 기본 설비로서 요구하는 점, 욕실에서 독립된 화장실을 합리적인 계획으로 인식하는 점, 욕실의 배수구를 필수 요소로서 인식하지 않는 점 등이었다. 조사대상 교민의 경우 이상적인 난방방식으로서 온돌을 꼽고 있어 난방방식 역시 관습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의 사용과는 큰 차이를 보임으로서 난방방식의 선택에는 실생활의 조건과 필요가 더 강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주인의 경우 기존의 관습이 변화한 요소로서 파악된 항목은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인이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새로운 계획 요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호주인 주택의 바닥재 역시 전통적인 카펫에서 나무 바닥재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실내에서의 신발 착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조사대상 호주인의 경우 좌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일부 나타남으로서 앞으로 호주인의 주생활에서 타(他) 문화의 접촉 및 교류를 통한 많은 변화

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호주인의 관습적인 난방방식인 덤티드 히팅 역시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과 함께 대체 방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 이 역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호주인의 주생활에서 새로운 요구로서 파악된 것은 기존에 없었던 욕실 배수구에 대한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이었다.

본 연구는 호주 교민과 호주인의 주생활을 비교 문화면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교민과 호주인의 주생활에서 전통으로서의 지속성이 강한 요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변화한 요소 그리고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 등을 파악하였다. 교민의 경우 관습적인 요소의 지속 정도는 조사대상 지역의 주거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이를 통한 변화에 못지않게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으로 호주인의 경우에는 관습적인 주거문화 속에서 타(他)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의 폭이 매우 넓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따라서 앞으로 많은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었다. 다양한 문화권 내에서의 주생활에 대한 비교 연구는 특정 지역의 주택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문화 간의 차이가 좁혀져 가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주거 문화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접수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12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2월 02일

【참 고 문 헌】

- 권오정·전계원(1999). 아파트 거실 바닥재에 대한 선호와 만족도. **한국주거학회지**, 10(2), 223-234.
- 김미희·문희정(2001). 식당점 부엌 전면배치형 아파트의 공간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8), 51-58.
- 김수진(1999).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아파트 단위평면 실내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현(1999). 아파트 단위평면의 유형별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규(1988). 아파트 단위평면의 특성과 거주자의 주의 식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2003). 캐나다 교민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4(3), 109-118.
- 박윤성(1986). 주거론. 서울: 문운당.
- 배정민외 2인(2001). 민영아파트 평면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2), 1-12.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도영(1998). 미국내 한인이민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조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31-40.
- 이도영(1998). 한인이민가정의 주거조절: 가설검증을 통한 이론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0), 11-17.
- 이영심·이상해(2005). 호주인과 호주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연구(I) -호주 교민의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07-125.
- 이영심·이상해(2005). 호주인과 호주 교민의 주거문화 비교를 위한 기초 연구(II) -호주인의 주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9), 143-162.
- 이영심(1987). 단독주택 거주자의 욕실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1992). 재미교포의 주거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봉(1998). 재미교포 주거건축을 통한 사용자 문화현장 연구: 광역 아틀란타 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11), 103-114.
- 장상욱(1996).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무웅(1988). 건축문화와 전통성에 관한 연구: 환경변화에 따른 공간적응성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논문집**, 22, 101-117.
- 조성기(1996). 도시주거학. 서울: 동명사.
- 조성희(1996). 문화접변에 따른 주양식의 지속과 변용에 관한 행태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9), 79-91.
- 조홍윤(2003).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 생활문화 비교. **민족과 문화**, 12, 23-33.
- 최목화(1991). 현대 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1-12.
- 伊東理恵(리에 이토)(1993). アメリカに居住における日本人の履床様式, 家庭學研究, 39(2), 47-56.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住様式がらみた住宅平面にする研究. 京都大學位論文.

- 今井範子(이마이 노리코)(1986). 起居様式の問題. *家庭科教育*, 67(9), 94-110.
- 任喜敬, 今井範子(임희경, 이마이 노리코)(1995). 韓國都市集合住宅における洗濯慣習と洗濯關聯空間の檢討, *家庭學研究*, 41(2), 55-65.
- Anna, C.(1999). *Australian houses and buildings*. Macmillan education Australia Pty Ltd.
- Archer, J.(1987). *The great Australian dream: The history of the Australian house*. Angus & Robertson, 43.
- Bechtel, R.(1989). Behavior in the house: A Cross-cultural comparison using behavior-setting methodology. *Housing culture and design*. ED. SETHA M. LOW and ERVE CHAMB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oyd, R.(1961). *Australia's home*. Melbourne University press.
- Brochures of Housing plans of Devine(2004). Devine Building Company. Melbourne.
- Cuffley, P.(1989). *Australian houses of the '20 & '30*. The five mile press.
- Cuffley, P.(1993). *Australian houses of the forties and fifties*. The five mile press.
- Dovey, K.(1992). Model Houses and Housing Ideology in Australia. *Housing Studies*, 7(3), 177-188.
- Evans, I.(1985). *The Australian home*. The Flannel flower press, Sydney.
- Francescato, A & Gärling(2002). Residential Environments: Choice, satisfaction, and behavior. Westport, CT: Bergin & Garvey.
- Galster, G. & Hesser, G.(1981). Residential satisfaction. *Environment and Behavior*, 13(6), 735-758.
- James P. 이희봉 역(1988).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Kim, W. P. & Lee, K. H.(2003). A-cross-cultural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ization of living space through childhood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5(1), 1-8.
- Lawrence, R.(1982). Domestic space and society: A cross-cultural study.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24(1), 104-130.
- Lee, H. J. & Parrott, K.(2004). Cultural Background and Housing Satisfaction. *Journal of Housing and Society*, 31(2), 145-158.
- Low, S. & Chambers, E.(1989). *Housing, Culture and Design: A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elbourne in Fact 2001(2003). 2001 Census Statistics for local Government Areas. Department of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
- Ozaki, R.(2002). Housing as a reflection of culture: Privatised living and privacy in England and Japan. *Housing studies*, 17(2), 209-227.
- Rapport A.(1960). 이규목 역(1985). *주거형태와 문화*. 열화당.
- Renovation Trends In Australia 2001-2002: A Special Report(2002). Archicentre. Melbourne.